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의롭게 되다'(디카이오오) : '의롭게 된다'는 것은 특정 가치나 절대적 신념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현실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저마다의 부족함을 하느님 안에서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고백 덕분입니다. 잘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부족해서 늘 하느님을 향해 용서를 청하는 일이 의로운 것입니다.

♣ 2025년 희년 성지순례 안내

- 일시 : 2025년 11월 1일 ~ 2일
- 장소 : Divino Amore 성모 성지 순례 및 성문 (Porta Santa) 행렬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주일미사 참례
- 숙소 : Ergife Palace Hotel & Conferene Center
- 희년 성지순례 관계로 다음 주일 본당 미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55.6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봉헌 :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성체 :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168 (오묘하온 성체)
 파견 :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19일)	다음 주일(11월 2일)
1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 2독서: 정지원 클라라 복 사: 안태오 마태오 / 변가인 헬레나	2025년 희년 성지순례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0월 26일

(녹) 연중 제30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제1독서 (집회서 35,15ㄴ-17.20-22ㄴ)

- 15 주님께서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 16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 17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 놓는 하소연을 들어 주신다.

20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21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피 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22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머뭇거리지 않으신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4,6-8.16-18)

사랑하는 그대여,

6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7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8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16 나의 첫 변론 때에 아무도 나를 거들어 주지 않고, 모두 나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불리하게 셈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17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18 주님께서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루카 18,9-14)

그때에 9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11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2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13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 세상살이의 희로 애락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고, 참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피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 실현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3. 감옥에 갇힌 이들과 교정 사목에 봉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서의 주님, 감옥에 갇힌 이들과 교정 사목에 힘쓰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지난 생활을 돌아보고 새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늘 주님 말씀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따르며 하나 되고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성체성사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 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